

보도시점

2024. 6. 27.(목) 15:00
< 6. 28.(금) 조간 >

배포 2024. 6. 27.(목) 08:30

산업재산 빅데이터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

- 경제안보 확립, 산업혁신 지원 등 산업재산 정보의 역할 논의 -
- ‘산업재산 정보 활용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’ 출범(’24.6.27) -

전(全) 세계 5.8억 건에 달하는 산업재산 빅데이터*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R&D·산업·안보·국정 운영 및 국가 안보 기술의 유출방지를 지원하기 위한 범국가적 정책 수립의 첫 걸음이 시작된다.

*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 등의 발생·변경·소멸 과정에서 수집되거나 생성된 정보

특허청(청장 김완기)은 6. 27.(목) 오후 3시 엘타워(서울 서초구)에서 ‘산업재산 정보 활용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(이하 ‘추진단’)’ 출범식을 개최했다.

추진단은 「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에 따라, 산업재산 정보 활용 기본계획(이하 ‘기본계획’)에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구성되었다. 서울대학교 정상조 교수를 단장으로 산업계, 학계·연구계, 공공·관리 등 30여명의 위원이 경제안보, 산업혁신, 인프라 등 3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.

올해 처음으로 수립되는 이번 기본계획은 ①안보 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, ②특허데이터 기반 기술·산업·경제 관련 전략 수립, ③특허 정보의 관리 및 활용 플랫폼 개발 등을 핵심주제로 다룰 예정이다.

정상조 추진단장은 “특허데이터는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며,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자산으로, 전략적 활용을 통해 그 가치를 극대화하고 우리 사회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”고 말했다.

김완기 특허청장은 “기본계획은 특허데이터 기반 산업·기술 모델의 확산,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의 이정표가 될 것”이라면서, “각계 전문가 위원들의 정책 제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”고 밝혔다.

※ 붙임: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구성 및 출범식 개요

※ 사진은 행사 후 배포 예정

담당 부서	산업재산정보국 산업재산정보정책과	책임자	과 장	최일승 (042-481-5460)
		담당자	사무관	이수한 (042-481-520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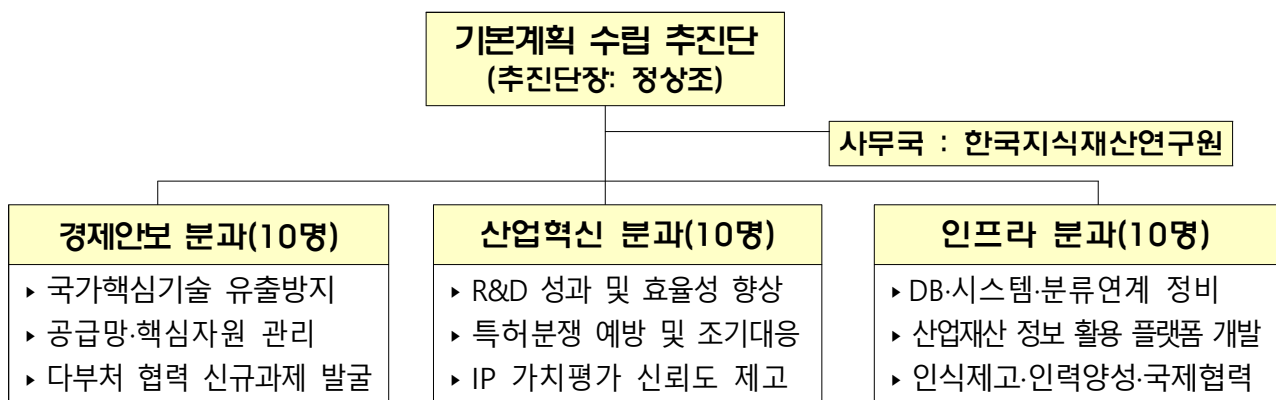
□ 행사 개요

- 목적 :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추진단 출범 및 위원 위촉
- 일시 /장소 : 6. 27(목), 15:00~17:00 / 서울 양재 엘타워 B1 골드홀
- 참석자 : 특허청장, 추진단장(정상조 교수) 및 위원 등 40여명

□ 주요 행사 내용

- 개회식(위원 위촉장 수여), 주제발표 및 추진단 킥-오프 회의

□ 수립 추진단 구성



□ 향후 일정

- 신규과제 발굴 및 분과회의 : 7~8월
- 기본계획 초안 수립 및 분과회의 : 9~10월
- 기본계획 최종안 마련 및 최종회의 : 11월